# 주부 신행담 내곁에 오신 부처님

## 두번이나 유산후 또 임신
## 관음보살 뵙고 염송한뒤
## 둘째아이 낳고 불교 귀의

그림 · 이준석

나는 전라남도 강진에서 태어났다. 친정어머니는 해방전에 기독교계통인 학교를 다녔을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 기독교를 믿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우리 형제들은 어렸을 때부터 불교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의 독실한 신앙심과는 달리 나는 1년에 한두 번 교회에 가볼까, 그나마도 언젠가부터는 발길을 끊은 상태였다.

고등학교 때의 일이었다. 어느 일요일 시골에 사는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와 둘이 뒤에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암자에 들렀다. 그 암자에서 비구니 스님이 나를 유심히 보더니 "학생은 앞으로 절에 다닐 상이구만"하는 것이 아닌가. 같이 갔던 친구에게는 "학생은 교회에 다니고 있네"라며 뜬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것이었다. 스물 네 살 되던 해에 친구 하나와 속리산으로 여행을 갔을 때였다. 법주사를 구경하던 중 어떤 스님에게 경내의 생소하고 신기한 것들에 관하여 여쭈었다. 스님께서는 친절하게 여러가지 답변을 해주셨고 〈반야심경 해설〉이라는 책까지 주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당시 법주사 주지 장이두스님이셨다. 지금도 나는 그 책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 나에게 있어 불교는 그렇게 다가왔다.

나는 서른이 다 되어 결혼을 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불교와의 인연을 만나게 된다. 남편은 대학 다닐 때까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 종교에 돌두하려 해도 "도대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과학적인 진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진리라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회의 때문에 몇년 간 주춤하고 있던 남편이 시골의 어느 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마침 그 학교 불교학생회의 지도교사가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 떠나게 되어, 다른 지도교사를 물색 중이었는데 불교라고는 완전히 까막눈인 우리 남편이 이상하게도 그 자리가 맡고 싶어 지더란다. 그렇게 불교와 첫 인연을 맺은 남편은 20여명 밖에 안되던 회원들을 3개월만에 60여명으로 늘리는등 수완을 발휘했다. 멀리 떨어진 영암의 도갑사까지 찾아가 스님을 모셔와 학생들에게 법문도 듣게 하였다. 초파일이면 그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강진의 백련사, 유치면의 보림사 등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방학이면 학생들과 수련회도 다니는등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다. 그때는 우리가 결혼하여 신접살림을 차린지 얼마 안되었을 때라 나도 시간이 나면 남편을 따라 다녔는데, 고즈넉한 절의 풍경과 바람결에 흔들리듯 들리는 목탁소리가 참으로 좋았다.

인연은 필연으로, 그러나 우연처럼 찾아오는 법인 모양이다. 원래 몸이 약했던 나는 큰 아이를 모진 고생 끝에 낳았고, 그 이후로 두 번이나 유산했다. 얼마 후 또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산모가 몸이 약해 아이를 낳기 어려우니 유산을 권유했다.

집으로 돌아오다가 초파일 때 함께 절에도 가고 늘 친정엄마같이 마음을 자상하게 써 주시던 이웃 할머니를 만났다. 정식 한약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한약을 잘 지어 알음알음으로 제법 소문이 난 분이었다. 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걱정을 하던 할머니는 '우리 영감'한테 들러보라고 했다. 저녁 때 남편 등에 업혀 할머니 댁으로 갔다. 할아버지는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한참 진맥을 하시더니 약을 지어주셨다.

할머니 댁을 나올 때 벽에 걸려있는 관세음보살이 희미하게 웃음을 짓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날 저녁부터 약을 다려먹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무슨 암시였을까. 아까 보았던 관세음보살이 자꾸만 머릿속 머리 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약을 먹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몸을 일으키는데 확실히 배의 통증이 어제 저녁보다 줄어 있었다. 급기야는 거짓말같이 딱, 5일만에 일어나서, 빨래도 하며 집안 일을 경소하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몸에 아이를 낳고 얼마 후 인사차 찾아간 할머니 댁에서 다시 본 관세음보살은 환하게 웃고 계셨다. 마치 "그 아이는 내가 보냈느니라"하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는데 나는 그 앞에서 수도 없이 합장을 했다. 그런데 신통하게도 작은 내 새끼는 자라서 스님이 되는 것이 금이란다. 마치 자기의 출생비밀(?)을 아는 것처럼 꼭 설법하는 법회를 본적이 없었다. 어느 내용을 들어도 막힘없이 대답하시는 법사님들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고 저절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우러나왔다.

근법당에 다니면서 '자비회'라는 신행단체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때 우리 회원들은 근무교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이것은 스님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십시일반으로 손을 모아 신병교육대 등 가까운 근무처로 찾아가 법회에 참석하는 군인들에게 간식을 넣어주는 등,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96년 수해 때 대대라는 법당 건립에 관한 일이다. 그때 우리 자비회는 여기저기 시주를 받으러 다닌할 줄도 모르게 돌아다녔고 단합이 될 때까지 매일 국수 등을 끓여 나르기도 했다. 신고대의 법당이 완공되던 날 갖은 고생을 해왔던 우리 회원들은 환희에 벅차 엉엉 울고 말았다. 이 불난의 때 힘, 그리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흔적없이 사라졌는데 대대라는 부처님을 한 분가 장고가 목숨을 걸고 건져 안전한 곳에 모셔 놓은 일도 잊을 수가 없다.

이런 일들로 좀더 큰 모임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 우리들은 '향지회'를 만들었다. 창립총회를 하던 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소비없이 자신을 태우는 향이 되기를 한마음으로 다짐하였다.

우리는 가장 손쉬운 일로 가까운 군부대 법회에 간식을 넣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수해 때는 회장의 지휘아래 거의 모든 회원이 나서서 이곳 연천지역은 물론 동두천까지 돌아다니며 복구작업에 고생을 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화채, 음료수, 간식 등을 나눠줬다.

나에는 아직도 몇가지 소망이 있다. 내가 앓고 병들어 이 육신이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부처님의 품을 떠나 살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어미로서의 도리를 다한 마음에는 스님들의 수발을 못바라지 못 드리면서 조용히 정진하는 삶으로 여생을 보내고 싶다.

박미영(경기도 연천)

작은키 포기 하지마세요

《성·장·발·육!》

키가 쑥쑥! 1m80 다리 시대!

키가 유전이라고요? 영양31% 유전23%

서울 대학교 천연물 과학연구소는 동·서를 가리지 않고 천연물을 원료 등 유용한 물질을 개발하기 위하여 1989년 강남지역 최초로 설립된 연구소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연구소입니다. 우물이 있는 곳에 물이 있듯이 훌륭한 노하우가 있는 곳에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서울대학교 천연물 과학연구소

엄마가 낳은 작은키 키돌이가 커집니다. 제조원 (株) 開豊洋行 판매원 (주) 성장원

許可番號 : 京畿 利川 衛 第13號

키돌이 성장원 KEYDORI SUNGJANGWON

사원모집 · 대리점 (02)563-1533

제품구입 : 소비자상담(무료전화) 080-011-8777



현세(現世)의 불자들이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家寶)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수 있는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성품(聖品)

# 법화삼부경(一名, 법화경) 금니 8폭 조각 병풍

특 징

- 법화삼부경 8만4천여 자가 8폭 금속판 위에 한자 한자 양각으로 입체 조각되어 99.9% 순금으로 도금된 후 영구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표면에 특수코팅 처리를 하여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습니다.
- 병풍은 한폭마다 연꽃, 구름, 법륜, 하늘, 바다 등 모든 구성요인이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로 전해질 수 있도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형이 가지 않는 목재와 특수재질을 혼합하여 조성되었습니다.
- 본 병풍 소장자는 부부이름이 금속판에 조각, 순금으로 도금한 후 병풍 뒷면에 부착되므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님으로 길이 남게 됩니다.
- 본 병풍은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허를 출원하였으며 한폭 한폭 조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신청 후 받으시는데 1~ 2주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인도방법은 손상의 우려가 없어 한폭 한폭을 원하시는 장소까지 본회에서 직접 모셔다 드립니다.

〈규격〉 높이 : 152cm 길이 : 366cm 무게 : 70kg

■ 본 병풍을 모신 스님과 불자들의 실증된 신통 실적들 사례

① 집안의 공기가 병풍에서 뿜아져 나오는 법기(法氣)의 영향으로 맑아지면서 집안에 생기가 가득하고 앉으로 6개월밖에 못산다는 중환자가 건강이 점점 호전되어 낫아지고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
② 도산 직전에 있던 회사가 사장이 이 병풍을 모신 후부터 매출이 갑에 신장되고 무연히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생기고 하여 이제는 완전히 회생하였다.
③ 자손이 없어 고민하던 사람이 병풍을 모시고 그 앞에서 3개월 정도 기도후 아기를 갖게 되었다.
④ 집안에 도적이 들어 온 집안을 뒤졌으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한다. 집안에 현금과 보석이 가득한데 그것을 못찾고 간 것은 병풍의 법기(法氣)가 재산을 가려주었다고 본다.
⑤ 사법시험에 몇년동안 실패했던 고시생이 집안에 병풍을 모신 뒤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⑥ 수험생을 둔 학부모 7명이 모두 병풍을 모신 뒤 원하는 대학에 무사로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⑦ 가톨릭을 믿고 있던 사람이 병풍을 모신 뒤 바로 불교로 귀의하면서 매일같이 병풍앞에서 3배씩 절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불경을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⑧ 32세의 노처녀가 병풍을 모신 뒤 2개월 만에 총각 한의사를 만나 결혼하였다.

# 상기 효험사례 외에 병풍을 모신 사람마다 크고작은 집안의 경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가족들이 모두 병이 없어지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집안이 화목해지고 어떤 일을 하던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어떤 힘(力)이 도와주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는 신비스러운 작용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연락주시면 카다로그 및 설명서 보내드립니다

『아래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담문의 및 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 (0335)334-9490, (0335)334-9491

야간 : (0342)706-306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